

# 해방후 민주녀성동맹의 강화발전에 쌓으신 업적

리 경 성

## 1. 서 론

우리 나라의 녀성운동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개척되고 강화발전된 주체의 혁명적녀성운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녀성운동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마련하시였으며 해방후 건당, 건국, 건군위업을 실현하시는 속에서도 녀성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여 광범한 녀성대중을 망라하는 조선민주녀성동맹을 무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심으로써 우리 녀성들에게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남자들과 똑같이 사회정치생활에 떼떽이 참가할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으며 우리 녀성들에게 가장 훌륭한 사회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무어주신 북조선민주녀성동맹이 수령님의 위대한 구상과 의도대로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여 광범한 녀성들을 녀성동맹에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결속하고 새 조국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어머니는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받들어나가는 길에서는 한치의 드림도 없으시였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3권 292페이지)

이 글에서는 해방후 민주녀성동맹을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위업을 받들어나가는 정치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바쳐오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헌신과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해설하려고 한다.

## 2. 본 론

### 2. 1. 민주녀성동맹의 주체적성격 고수

광범한 녀성들을 망라하고있는 대중조직으로서 우리 당의 인전대인 녀성동맹의 주체적성격을 고수하는것은 나라를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며 새 조국건설에 이바지하려는 광범한 녀성들을 튼튼히 묶어세우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북조선민주녀성동맹은 말그대로 진보적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각계층의 광범한 녀성들이 망라되는 대중적조직입니다.》(《김일성전집》 제8권 338페이지)

해방후 민주녀성동맹앞에는 녀성대렬의 분렬을 방지하고 우리의 민주력량의 통일단결에 기여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설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광범한 녀성들을 민주녀성동맹에 조직적으로 결속하는것을 방해하고있는 반동파들의 책동은 결국 우리의 민주건국로선에 대한 역행이며 민주력량의 통일단결을 저해하고 세기적인 봉건유습으로부터의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실현할수 없게 하려는 반민주주의적이며 반민중적인 행위이라는데 대하여 지적하시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며 새 조국건설에 이바지하려는 녀성이라면 그의 출신과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녀맹조직에 망라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단일한 대중조직인 민주녀성동맹을 창립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주체34(1945)년 11월 18일에는 여러 근로단체들중에서도 북조선민주녀성동맹을 먼저 결성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민주녀성동맹은 이 땅우에 녀성해방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을 구현하고 당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우리 나라 광범한 녀성들의 민주주의적대중조직이라고 밝혀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우선 위대한 수령님의 녀성해방에 관한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뜻대로 녀맹사업을 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주체35(1946)년 봄 녀맹중앙위원회에서 조직한 협의회에 참석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거리에 붙어있는 《녀성들의 인권을 옹호하자!》, 《참된 녀성해방은 참정권쟁취로부터!》라는 구호들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직후 조선녀성운동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면서 제시하신 《전체 녀성들이여, 민주주의기발아래 굳게 뭉쳐 새 민주조선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내붙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우리의 인민정권이 녀성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여러가지 시책들을 실시하고 녀성들이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나라의 정사에 참가하고 공장의 주인, 땅의 주인이 된 오늘의 조건에서 《인권옹호》와 《참정권》을 구호로 내든다는것은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지 않는것이라고 깨우쳐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앞으로 녀맹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의도대로 분석판단하고 해결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이 시기 분산적으로 활동하고있던 몇개의 녀맹단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민주녀성동맹이 조직되는 틈을 타서 녀맹대오안에 기여든 일부 불순분자들은 녀맹조직을 내부로부터 와해시켜보려고 음흉하게 책동하였다.

주체34(1945)년 12월 북조선공산당중앙조직위원회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 결정관철을 위한 녀성동맹의 과업을 토의하는 녀맹중앙위원회 간사회의에서 일부 불순분자들이 공산당의 정치로선만이 아니라 《대동단결》하여 리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부르조아공화국을 세울데 대한 민주당의 《정치로선》도 함께 토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회의를 파탄시키려고 책동한것은 녀성운동에 대한 우리 당의 령도를 거부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 녀성운동을 분열시키려는 음흉한 기도에서 출발한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녀맹일군들에게 불순이색분자들의 정체를 까밝히시면서 녀맹은 노동계급의 당의 령도를 받아야 녀성해방의 과업을 완수할수 있다고 가르쳐주시고 녀맹이 공산당의 정치로선을 적극 지지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녀맹핵심들을 발동하여 불순이색분자들의 반동적책동을 폭로규탄하고 녀맹대오안에서 그자들을 조직적으로 숙청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녀맹대렬안에 기여든 불순이색분자들에 대한 폭로사업이 녀맹열성자회의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지방녀맹조직들에서도 광범히 벌어졌으며 결과 이자들은 녀맹대렬에서 제거되게 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후에도 녀맹일군들을 자주 만나시여 녀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길로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녀맹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분석판단하고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민주녀성동맹의 강령작성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우리의 녀성운동은 민주주의를 떠나서 있을수 없다. 녀성들은 어느것이 참다운 민주주의인가를 철저히 인식하는것과 함께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친일분자, 친미분자, 민족반역자를 비롯한 반동분자들과의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만일 녀성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자각이 없고 민주주의운동에 열성이 없다면 그들이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녀성들을 묶어세운 녀성단체는 일제놈들의 《애국부인회》와 같은것이 되고말것이라고 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35(1946)년 3월 민주녀성동맹의 강령초안작성정형을 료해하시고 1920년대 자산계급출신의 녀성들이 들고나온 인권옹호와 관련한 강령을 그대로 받아 외우거나 지난날 사회주의녀성운동자들이 제창하던 프로레타리아녀성해방강령을 기계적으로 옮겨놓는 두가지 편향을 지적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모든 녀성들이 당의 기본정치과업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녀맹의 첫째가는 임무로 내세워야 하며 이와 함께 녀성들을 식민지적 및 봉건적착취에서 가장 철저히 해방하는 문제, 그들의 정치경제적지위를 높일데 대한 문제, 녀성들을 천시하는 봉건적악습과 세기적무지와 몽매에서 그들을 해방할데 대한 문제 등을 강령에 담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민주녀성동맹의 강령이 마침내 주체35(1946)년 5월에 진행된 북조선민주녀성동맹 제1차 대표자회에서 채택됨으로써 녀맹조직이 자기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확신성있게 일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민주녀성동맹이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전통을 옳게 계승해나가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전통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전통이며 녀성운동력사는 녀성들의 사회정치적해방과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빛나는 투쟁력사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강반석녀사께서는 일찌기 부녀회를 무으시여 우리 나라 공산주의녀성운동의 시초를 열어놓으시였으며 녀성운동을 자주의 길로 힘있게 전진시키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녀성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켜 부녀회를 비롯한 여러 혁명조직들에 묶어세우시였으며 그들이 반일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도록 이끄시여 녀성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다.

민주녀성동맹이 결성된 후 녀성들과 녀맹일군들은 조선녀성운동의 역사적뿌리에 대하여 똑똑한 견해를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여러 녀성단체들을 통합하여 민주녀성동맹이 결성되기는 하였으나 민주당계통이나 그리스도교계통 녀성단체출신들은 저마다 자기의 《전통》을 내세우고있었으며 부녀동맹출신의 일부 사람들은 종파분자들이 벌린 무슨 《투쟁》이요, 《운동》이요 하는것들을 내세우면서 거기에서 우리 나라 녀성운동이 시작된것처럼 주장하였다. 어떤 글에서는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시원을 1924년에 조직되었던 《조선녀성동우회》로 보고 그 《업적》에 대하여 장황하게 서술하였는가 하면 지어 일제의 어용부인단체였던 《애국부인회》의 《활동》을

찬양하고 내세우기까지 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녀맹중앙위원회에서 조직하는 주요행사와 모임들에 참석하실 때마다 북조선민주녀성동맹의 깊은 뿌리에 대하여 강조하시였으며 회의의 보고문도 보아주시면서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전통문제를 똑똑히 밝히도록 하시였다.

주체35(1946)년 3월 해방된 조국땅에서 처음으로 기념하는 3.8국제부녀절과 관련하여 한 녀성일군을 부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기념보고문의 초안을 검토하여주시면서 보고가 국제부녀절의 유래로부터 시작하여 세계녀성운동의 이러저러한 조류와 그 발생발전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면서도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발전력사와 그 경험, 우리 나라 녀성운동이 계승하고있는 빛나는 혁명전통에 대하여서는 적게 언급하고있는 부족점을 지적하시고 보고가 잘되자면 응당 우리의것을 자랑스럽게 강조해야 하며 우리 녀성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당면하게 수행해야 할 과업들을 뚜렷하게 밝혀야 한다고 깨우쳐주시였다.

그후 주체35(1946)년 5월 평양에서 열린 북조선민주녀성동맹 제1차 대표자회에 참가한 녀성대표들을 여러차례 만나시여 회의의 진행정형이며 참가자들의 반향 등을 알아보시고 회의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데로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회의에 참가한 녀성항일투사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녀성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바쳐오신 심혈과 로고에 대하여 되새겨주시며 우리에게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반일부녀회사업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들이 적지 않다고, 녀성동맹의 앞길을 밝혀주신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일을 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36(1947)년 2월에도 중앙녀맹일군들을 부르시여 녀성운동의 전통문제와 관련한 이러저러한 주장들의 부당성을 하나하나 밝혀주시며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참다운 전통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선혁명과 녀성운동을 승리로 이끄심으로써 이룩될수 있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리시면서 우리 나라 녀성운동이 계승해야 할 혁명전통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선전사업을 활발히 벌리기 위한 방법과 그 형식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리하여 녀맹에서는 우리 나라 녀성운동이 이어나가야 할 혁명전통에 대한 선전교양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였으며 그를 외곽하거나 헐뜯으려는 현상들과 투쟁을 벌리게 되였다.

이처럼 민주녀성동맹이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주체적인 녀성동맹으로서의 성격을 고수해나가도록 하신것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해방후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강화발전에 쌓으신 빛나는 업적이다.

## 2. 2. 민주녀성동맹을 대중적정치조직으로 강화발전

녀성들이 하나의 민주주의적녀성조직에 모두가 망라되어야 단결된 힘으로 새 조국건설에 이바지할수 있으며 민주주의적인 교양과 조직적인 훈련을 받고 훌륭한 일군으로 자라날수 있다. 녀성들의 건국열의가 아무리 높고 그들의 노력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하나의 조직에 뭉치지 않고서는 녀성들앞에 나선 건국사업도 사회적해방을 위한 과업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여성동맹은 우리 나라 전체 사회성원의 반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대중적정치조직입니다.》(《김일성전집》 증보판 제8권 211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 전체 사회성원의 반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결속하는것은 혁명력량을 확대강화하고 부강한 새 조국건설을 촉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여성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당의 주위에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통일전선의 기초를 튼튼히 닦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여성들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결속하여 민주여성동맹을 위력한 대중적정치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였다.

녀맹이 결성되던 초기 여러가지 편향들이 나타나고있었다.

특히 녀맹조직이 중앙과 도, 시, 군, 면소재지를 비롯한 도시와 가두를 중심으로 결성되고 공장과 농촌여성들속에는 뿌리박지 못하고있었다.

평양시녀맹원구성만 보아도 로동여성들보다 가두여성들과 지식인여성들이 훨씬 더 많았으며 평양곡산공장은 종업원 1 100여명가운데서 여성이 800명이나 되였지만 녀맹조직이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여성동맹을 강력한 대중적조직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녀맹사업의 중심을 근로여성들과의 사업에 두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 근로여성들은 일제강점시기에 압박과 착취를 가장 많이 받아왔기때문에 낡은 사회제도에 대한 증오심이 강하며 민주주의적 새 조선을 건설하려는 열의가 높다고, 녀맹조직이 근로여성들속에 튼튼히 뿌리박아야 보다 강력한 대중단체로 강화발전될수 있다고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35(1946)년초 중앙녀맹일군들의 협의회에서 근로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녀맹조직에 받아들이지 않고있는 편향을 바로잡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민주여성동맹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새 조국건설과 여성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우리 나라 광범한 여성들의 민주주의적대중조직인것만큼 응당 누구보다도 새 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나가는 광범한 근로여성들로 조직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여성동맹은 반드시 근로여성들을 중심으로 하여 광범한 여성들을 자기 대렬에 묶어세우며 그들을 꾸준히 교양하여 새 민주조선건설에 적극 떨쳐나서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35(1946)년 3월 각 도, 시, 군녀맹조직들에서 공장과 농촌들에 녀맹조직을 내오는 사업을 빨리 추진시키도록 하시였으며 중앙녀맹이 곡산공장에서 녀맹조직을 내오기 위한 사업을 도와주도록 하시였다.

이에 따라 중앙녀맹에서는 평양곡산공장 물엿직장에 먼저 시범적으로 녀맹초급단체를 내오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공장의 모든 직장들에 녀맹초급단체를 내왔다. 그리고 평양시안의 녀맹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여 곡산공장녀맹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한편 녀맹조직에서 중소기업가, 상인, 종교인 등 여러 계층의 여성들을 받아들이지 않고있는 편향도 극복하도록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35(1946)년 3월 동평양지구에 나가시여 여러 계층의 여성들과의 사업을 외면하고있는 녀맹일군의 그릇된 태도를 바로잡아주시며 각계각층의 모든 애국여성들을 녀맹조직에 다 받아들이게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리하여 주체34(1945)년 11월 녀맹이 결성될 당시 15만명이였던 녀맹원수는 주체35(1946)년 5월 녀맹 제1차 대표자회때 이르러 60여만명, 주체35(1946)년말에는 무려

100만명으로 장성하게 되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녀맹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녀맹조직의 지도체계를 합리적으로 세우도록 하시였다.

도시와 농촌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녀맹조직들이 확대됨에 따라 그에 대한 조직지도 체계를 옹계 세우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나섰다.

평양시만 하더라도 80여개의 리녀맹조직들이 조직되어있었는데 시녀맹이 모든 리녀맹조직을 직접 대상하여 일하다나니 강연이나 해설담화사업 하나 포치하자고 해도 여간 만 복잡하지 않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시녀맹아래에 리녀맹과 공장, 기업소, 기관녀맹단체들을 지도하는 중간단위를 내올것을 받기하시고 사동특별구녀맹조직의 경험을 받아들이도록 하시였다.

당시 사동지역에는 3 000여명에 달하는 녀맹원들을 하나의 리녀맹에 망라시켜 생활 시키는것이 어려운 조건에서 남주택, 북주택, 태성지구 등 부락단위로 녀맹지부를 결성하고 그것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사동특별구녀맹을 내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 경험을 받아들여 시녀맹아래의 동평양지구녀맹위원회를 먼저 내오게 하시고 이어 중구, 서구, 북구에도 지구녀맹위원회를 내오도록 하시였다.

지구녀맹위원회가 조직됨으로써 중앙과 시녀맹의 지도가 기층녀맹조직들에 더 잘 미치게 되었으며 사업에서 복잡성을 없애고 녀맹일군들이 자기 사업을 더 실속있게 벌려 나갈수 있게 되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후 우리 녀성들을 사상의식적으로 각성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나라가 해방은 되었으나 녀성들은 무지와 몽매, 일제사상잔재와 봉건유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녀맹조직이 녀성들속에서 문맹을 퇴치하고 미신행위를 없애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평양연초공장을 비롯하여 녀성로동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장들과 평안남도 룡강군, 대동군과 강동군의 여러 농촌마을들을 찾으시여 실태를 료해 하시고 녀맹조직들이 문맹퇴치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떠밀어주시였다. 그리고 주체 36(1947)년 11월에는 문맹퇴치사업에 대한 녀성들의 그릇된 태도도 바로잡아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특히 녀맹조직들이 미신행위를 없애기 위한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녀맹조직들이 자기 고장의 실재한 사실을 가지고 미신타파를 주제로 한 소품들을 만들어 녀성들속에 들어가 공연하도록 하시고 지난날 먹고 살아가기 위해 무당이나 점쟁이노릇을 하던 녀성들을 장악하고 그들을 교양각성시켜 대중모임장소에서 미신의 허황성을 폭로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도 널리 리용하도록 하시였으며 주체 35(1946)년 4월 양덕군 대탕지마을에 가시였을 때에는 그곳에서 치료받던 녀성들속에 들어가시여 미신행위의 해독성을 차근차근 깨우쳐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36(1947)년 12월 어느날 녀맹중앙위원회에 나오시여 최근에 평안남도 룡강군에서 미신행위때문에 빚어진 사실에 대하여 알려주시였다.

룡강군의 한 녀성이 어머니가 갑자기 앓아눕게 되자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받을 대신 무당을 데려다 련 사흘 곳만 하다가 종시 어머니를 잃고만 사실이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러한 미신행위가 녀성들속에서 없어지지 않아 새 사회건설과 녀성운동발전에 큰 지장을 주고있다고 하시면서 룡강군에서 있는 사실을 가지고 평안남도

녀맹에서 짧은극을 하나 잘 준비하여가지고 도안의 여러 군들을 돌면서 공연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공연된 혁명연극 《성황당》이 군중들속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나타낸데 대하여 들려주시었다.

이렇게 되어 평안남도녀맹에서 만든 미신타파주제의 예술소품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으며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다른 도들에서도 자기 고장에 실재한 사실을 가지고 극을 만들어 순회공연을 하도록 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녀맹조직이 출판물과 방송선전을 통하여 녀성들을 각성시키고 교양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고 녀성잡지를 내오기 위한 사업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35(1946)년 2월 녀성잡지창간호발간을 위한 편집성원들을 잘 꾸리게 하시고 그들의 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후 여러차례에 걸쳐 편집안을 보아주시고 편집방향도 정해주시며 잡지에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실을데 대한 문제로부터 잡지의 내용, 제호와 표지를 완성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시었다.

그리하여 주체35(1946)년 9월에 나온 《조선녀성》잡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녀성들을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새 조국건설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되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방송을 녀성교양에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방송강연》과 《가정시간》을 설정하고 이 시간에 정치문제와 다양한 상식을 내보냄으로써 녀성교양에 이바지할수 있게 하시었다.

이 시기 방송을 통하여 내보낸 《첫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녀성들의 임무와 역할》, 《인민경제계획과 절약》, 《3.8절과 해방된 조선녀성》 등 《방송강연》과 《인민회의란 무엇인가?》, 《녀성과 독서》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설한 《가정시간》은 녀성들을 각성시키고 새 조국건설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었다.

이렇듯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해방후 짧은 기간에 녀성동맹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녀성들을 망라하는 대중적인 녀성조직으로, 조직사상적으로 위력한 정치력량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 2. 3. 녀성들을 건국사업에 적극 조직동원

녀성들이 건국사업에 적극 참가하는것은 녀성해방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우리 나라 녀성들은 오래동안 봉건료리도덕에 얽매여 사회활동에 나서지 못하고 가정에 파묻혀있었으며 온갖 멸시와 천대속에서 눈물겨운 생활을 하여왔다. 우리 녀성들이 과거의 이러한 처지에서 벗어나며 자기들의 사회적해방을 실현하려면 건국사업에 떨쳐나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민주녀성동맹은 광범한 녀성들을 건국사업에 적극 조직동원하여야 하겠습니까.》  
 (《김일성전집》 증보판 제4권 375~376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 조선건설에서 녀성들앞에 나서고있는 임무는 참으로 중대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은 건국사업에서 수레의 한쪽

바퀴와 같은 역할을 하고있다, 수레가 잘 달리자면 두바퀴가 다 제대로 굴러야 하는것처럼 우리의 건국사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어나가려면 남자들과 함께 여성들이 큰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민주여성동맹이 여성들을 건국사업에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여성들이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어나가는 위력한 역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지난날 조선의 적지 않은 여성들은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하여 조국을 해방하는 성스러운 위업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나날에 직접 무장을 들고 적과 싸웠거나 지하에서 군중사업을 한 여성혁명가들은 다름아닌 노동자, 농민의 순진한 딸들이였다.

모든 여성들이 자기도 새 조국을 일떠세우는 건국일군이라는것을 옳게 깨닫고 한결같이 떨쳐나선다면 건국사업에서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질것이였다.

그런데 어떤 여성들은 너자가 무엇을 하겠는가, 너자가 앞에 나서고서야 일이 되는가고 하면서 건국사업에 나서기를 주저하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우선 민주여성동맹이 여성들을 경제건설사업에 적극 참가시키도록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36(1947)년 2월 중앙녀맹일군들에게 방대한 경제건설과제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전제로 하고있으며 또 그들이 동원되어야만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여성들의 대중정치조직인 여성동맹이 여성들을 나라의 경제계획수행으로 불러일으키는것을 자기의 중요한 임무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여성들을 인민경제계획수행으로 조직동원하기 위하여서는 한 단위에서 시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모든 단위에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밀고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 보시고 그 시범단위를 여성노동자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있는 평양제사공장으로 정해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36(1947)년 4월 평양제사공장을 찾으시여 걸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알아보시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사공들이 하루종일 뜨거운 물에 손을 잠그고 일하는것을 보시고 고무앞치마를 해주며 배풍기를 설치하여 증기를 없앨데 대하여 일깨워주시였다. 그리고 합숙을 돌아보시면서 해빛이 잘 드는 곳에 새 합숙을 지어주고 세탁소를 꾸려주며 식당에서 식사와 질을 높일데 대하여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공장에 기능공이 부족하다는것을 료해하시고 기능공전습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새로 들어온 노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한편 각지에 흩어져있는 오랜 기능공들을 빨리 데려오도록 하시였다.

녀맹중앙위원회에서는 평양제사공장에서 시내녀맹일군들의 시범상학을 조직하는 한편 공장녀맹에서 창조된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지도서도 만들어 전국의 생산부문 녀맹조직들에 내려보냈다. 그리하여 첫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녀맹조직들의 역할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평양제사공장은 주체36(1947)년 10월 9일까지 년간계획을 100%로 완수하는 자랑스런 성과를 거두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가두여성들이 건설장들과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로력지원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해방후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사회활동을



벌리고있었으나 집에 있는 녀성들도 적지 않았다. 녀맹조직에 망라되어 생활하고있는 20%의 녀성들은 가두녀성들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보통강개수공사를 앞당겨 끝내기 위하여 녀성들이 적극 떨쳐나서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해방전 보통강은 해마다 장마철에 조금만 비가 내려도 큰물이 저서 보통강반 특히 토성랑과 서평양 및 대타령일대는 물바다로 되였고 인민들은 물란리를 겪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보통강일대를 돌아보시고 해마다 큰물피해를 받는 평양시민들의 생활을 위해 보통강개수공사를 발기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35(1946)년 5월 녀맹일군들을 여러차례 만나시여 녀성들을 보통강개수공사에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잘하도록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평양시가정부녀대회를 열고 시안의 녀성들이 보통강개수공사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하시고 공사가 진척되자 녀맹조직들이 로력지원사업과 함께 후방물자를 마련하여보내는 사업과 위문선전대활동도 적극 벌리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매일과 같이 공사장에 나가 건설자들과 함께 땀흘려 일하시면서 그들을 로력적위훈으로 힘있게 고무하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 끝없는 헌신성과 한없이 소박한 인민적풍모를 남김없이 보여주시였다.

3년이 걸려도 못한다던 방대한 공사를 착공한지 단 55일만에 완공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보통강개수공사완공경축대회를 할수 있게 된데는 김정숙동지께서 불러일으킨 녀성들의 힘도 큰 역할을 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녀맹에서 물질적지원에만 치중하면서 로력적지원에 낮을 돌리지 않고있는 편향을 바로잡고 로력지원을 적극 벌리도록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36(1947)년 7월 녀맹중앙위원회를 찾으시여 주요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로력지원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8.15를 계기로 평양제사공장에 대한 로력지원사업을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평양제사공장에 파견된 녀성로력지원대는 년간계획수행을 완수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그리고 8.15해방 2주년을 맞으며 로력지원돌격주간을 설정하고 금속공업, 채취공업을 비롯한 중공업부문들과 경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로력지원사업도 힘있게 진행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녀성들속에서 건국사업에 이바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운동을 벌리도록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35(1946)년 2월 녀성들속에서 당시 우리 나라에서 어려운 문제로 나섰던 식량문제를 푸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헌포운동을 벌릴것을 발기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녀성들속에 헌포운동의 필요성과 의의를 깊이 해설침투시키기 위한 헌포운동해설대를 무어 파견하도록 하시였다.

헌포운동해설대가 조직되어 광범한 농촌녀성들속에 들어가 적극적인 선전사업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수많은 농촌녀성들이 헌포운동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지고 적극 떨쳐나서게 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녀성들속에서 발현되는 모범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시였다.

녀성들의 첫 대중운동으로 벌어진 헌포운동은 주체35(1946)년 6월에 이르러 20만필의 목표를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나라의 식량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으로 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밖에도 직물생산의 원료를 보장하기 위한 누에치기, 목화재배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녀맹조직들이 이 사업을 중요한 경제과업으로 틀어쥐고 나가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평안남도에서는 강서군여성농민열성자대회와 그에 호응하는 평안남도녀맹 열성자대회가 열렸으며 이어 전국의 모든 녀맹조직들과 녀성들은 누에치기와 목화재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녀맹에서 건국사업에 필요한 녀성사무원들을 양성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를 적극 받아들여나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35(1946)년 11월 여자기술학교를 평양에 먼저 시범적으로 내오게 하시고 이 사업을 중앙녀맹의 지도밑에 평안남도녀맹이 책임지고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후 여자기술학교설립준비위원회 성원들을 만나시여 그들이 신심을 가지고 달라붙도록 고무해주시고 속기과, 회계과, 타자과 등 학과설정과 과정안작성, 교원진영을 꾸리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학교설립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주체36(1947)년 2월 여자기술학교가 나오고 이 학교졸업생들은 각급 정권기관, 경제기관들에 파견되어 국가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하게 되였다.

이처럼 북조선민주여성동맹은 해방후 광범한 녀성들을 자기 대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을 민주건국사업에 적극 조직동원하였다.

### 3. 결 론

참으로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력사의 갈피갈피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파사로운 령도의 손길이 닿아있으며 우리 녀성들의 권리와 존엄을 철저히 옹호보장하고 그들에게 진실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바쳐오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정력적인 활동이 아로새겨져있다.

오늘 우리 녀성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사회와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본분을 다하며 시대의 꽃으로서의 영예를 계속 떨쳐가고있다.

녀맹조직들과 녀성들은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어나감으로써 모든 녀성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투쟁에서 애국의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녀성운동, 헌포운동, 건국사업